

# 겨울철 자연재난 피해예방 나서

### 남원시, 대설·한파 대비 사전 점검·기관들과 협조체계 구축 등

남원시(시장 이원주)는 겨울철 대설 및 한파 등 자연재난에 대비 유관기관·단체와 협력하여 피해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맞아 10월 1일부터 11월 14일까지 사전대비기간을 운영하여 대설 및 한파 대비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유관기관·단체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응 태세를 구축하고 있다.

겨울철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및 신속한 복구 등 유관기관·단체와의 협력을 위해 지난 10월 27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남원경찰서, 남원소방서, 지역자율방재단, 대한적십자봉사단 등 유관기관·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실시하여 대설 및 한파 등 기상 특보가 발효되거나 이에 따른 피해 발생으로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될 경우 파견근무 등에도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대설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하여 미끄러짐 위험이 있는 시내도로 22개소에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판 설치, 읍면동 주요 도로변에 모래주머니 2만개 배치, 주요도로변 제설작업을 위한 제설차(염화칼슘 200톤, 소금 1,500톤) 구입 및 취약지역에서 주민들이 직접 제설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염화칼슘 1,800포(25kg/포)를 구입하여 읍면동에 배포할 예정

이다.

그리고 시 직원들은 폭설시 지역 자율방재단, 대한적십자사 남원지구협의회 등 7개 단체와 함께 제설장비 진입이 어려운 마을안길, 도로 등 14개 구간에 제설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상수도관 동파방지, 농축산시설 및 농작물 피해예방,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인명피해 예방 등을 위한 홍보활동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앞으로 남원시에서는 폭설, 한파 등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유관기관·단체와 협력을 통하여 겨울철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 고창군-티업-청파원, 투자협약 체결

### 공장건립 투자 등 진행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주)티업(대표 이사 김범수), (농)청파원(대표이사 김중제)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14일 군청 상황실에서 박우정 군수와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장건립 투자협약 등이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주)티업은 고창북분자농공(특화)단지 2만7,755㎡ 부지에 100억원을 투자해 생수병에 꽂아 마시는 차(茶)음료인 리얼티업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건립키로 했으며, (농)청파원은 2만3,961㎡부지에 30억원을 투자해 천연발효식초 제조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주)티업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냉차를 우려내는 독창적 용기제조기술과 합성첨가물 없이 차 본연의 맛을 찬물에서 우려내는 가공기술을 바탕으로

기존 생수병에 걸착해 차를 마실 수 있는 리얼티업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현재 캘리리아 백화점, 롯데 백화점, 올리브 영 등에 입점해 판매 중이며 내년에는 중국 철도청, 베트남 등 세계 대형매장으로 유통망을 확대해 750억원의 매출이 전망되고 있다.

특히 차(茶)원료인 패지감차, 우영, 옥수수 등을 지역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확보할 계획으로 농가소득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농)청파원은 전통발효식초 제조시설 뿐만 아니라 6000여개의 향아리를 배치하고 체험과 교육시설 등을 설치해 식품제조업과 문화·관광 서비스업이 연계된 6차 산업의 성공적인 사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 농특산품이 미국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며 식품한류 열풍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

## 고창 농특산품 미국 시장 '큰 인기'

### 미국관측행사서 배·한과 등 27개 품목 6800만원 판매 매출 기록

고창 농특산품이 미국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며 식품한류 열풍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

고창군(군수 박우정)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4일까지 미국현지 대형마켓에서 개최된 고창 농특산품 관측행사서 배, 한과, 오색보리, 떡, 천일염, 고춧가루, 복분자즙, 고구마 말랭이 등 27개 품목의 관측행사를 통해 6800만원의 판매 매출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관측행사 품목 중 유네스코 고창생물권보전지역에서 재배된 쌀, 참쌀, 복분자 등 청정 원재료를 활용해 생산한 오메기 떡, 복분자 한과, 보리강정 등이 뛰어난 맛과 품질로 조기 매진되며 높은 호응을 보였다.

여기에 시장가능성을 본 바이어가 추가 관측행사를 진행해 지난 사임당푸드(영)(대표 조해주)와 4만달러에 해당하는 물량을 추가로 주문했으며 지난 11일 미국으로 수출선적을 진행했다.

추가 수출이 성사된 사임당푸드(영) 조해주 대표는 "전통식품인 한과와 떡 제품이 세계인들에게도 호응이 높아 더 넓은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임당푸드(영)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지원하는 2016 수출상품화 기업으로 선정

돼 지난 달 9일 중국 장춘시 오야 백화점에 프리미엄 정과세트 수출계약도 체결했으며 지난 달 28일에는 고창군을 방문한 베트남 이마트 고발점 구매담당자와 수출상담을 통해 현지 시장진출을 준비하는 등 전통식품의 수출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한국인의 분향 고창군에서 생산되는 전통식품이 미국시장에 더 많이 판매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고창산 쌀, 복분자와 같은 원재료를 활용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낸 식품들의 해외수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순창군, 정부예산 확보 막바지 '총력'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황숙수 순창군수가 지난 14일 국회를 방문해 도내에서 유일하게 예결위 소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광수 의원을 만나 막바지 정부예산 확보에 힘을 쏟았다.

황군수는 이날 김의원을 찾아 2017년도 정부예산 중 순창관련 사업에 대해 증액에 대한 필요성과 사업추진 당위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황군수가 순창 미래비전 창출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설명한 사업은 △국도 21호선 도로 개량사업(발재터널개설) △문체부 참살이 발효마을 조성사업 △발효미생물 산업화용 생산시설 건립사업 △전통기술 창조

기업센터 구축사업 등이다.

황군수는 "국도 21호선의 경우 서부평야권과 동부산악권을 잇는 편도 1차로로 교통이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유동 및 관광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서도 도로 개량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또 "교통사고 위험이 전북지역에서도 가장 높은 구간인 만큼 사업비가 증액될수록 꼭 힘을 실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외에도 전통장류를 문화 관광과 접목해 장류산업의 일대 혁신을 가져올 "참살이 발효마을", "창조기업센터 구축" 등 순창의 미래비전 창출에 꼭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 설명하고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심도

### 국도 21호선 도로 개량사업 등

있는 논의를 가졌다.

김의원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지역에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준 만큼 전북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또 필요한 부분에서 증액될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하자"고 답했다.

김광수 의원은 최근 전북예산의 삭감을 막고 지역차별 예산, 최순실 국정농단 예산을 삭감하는데 큰 역할을 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군은 앞으로 예결소위 감액·증액 심사에 모든 인적네트워크를 동원해 대응하고 군 관련 예산이 최종 예산으로 확정될 때까지 전 직원이 총력을 기울여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 순창군, 친환경농업 일변지로 '발돋움'

순창군이 화학비료 사용량을 줄이고 친환경 비료 공급을 확대해 친환경농업 일변지로 확고히 발돋움 했다.

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농협중앙회가 주관한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평가에서 친환경비료공급분야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시상은 14일 충북 단양 대명리조트에서 열린 '2016년 친환경비료 연찬회 및 워크숍'에서 진행됐다.

이번 평가는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친환경비료 공급 확대와 화학비료 사용량 절감 추진을 위해 노력한 우수 지자체를 선발 시상해 친환경 농업의 중요성을 확산시키고자 추진했다.

순창군은 토양환경 적정성 및 증가율, 시비처방서 발급비용, 유기질비료 사용량 증가율, 화학비료 사용량 절감 비율, 교육·홍보 실적, 예산집행

노력, 지자체단체장의 의지 등 7개 평가항목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유기질비료 단위면적당 공급량 증가율이 7.5%, 화학비료 단위면적당 사용량 절감율이 10.8%로 전국 평균을 크게 앞섰고 녹비작물 면적 증가율 등 유기질 토양 환원 지원사업과 친환경비료 공동사용 지원, 친환경비료 자체 품질 점검 실적 등 지자체와 자치단체장의 의지 등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순창군은 친환경농업 확대를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를 군정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친환경연구센터 건립 등 하드웨어는 물론 다양한 친환경농업 지원사업과 교육 사업을 진행해 친환경농업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임실군,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

임실군 청용면 지역발전협의회(회장 이금로)는 청용면사무소 광장에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음악회는 지난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지역민 화합과 문화 감동 확산을 위해 기획됐으며,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 및 각종 공연이 진행됐다.

특히 노래교실의 트로트 메들리와 청용면 밴드의 기타 연주는 늦은 가을밤의 정취와 어울려 큰 인기를 얻었으며, 우드버닝 작품 전시 및 시연도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금로 회장은 "작은 음악회를 통해 화합의 장과 지역공동체 문화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순창경찰, 범죄예방 범범활동

순창경찰서(서장 최규은) 남계파출소(소장 이종권)에서는 남계 자율방범대와 청소년 선도를 위한 캠페인과 각종 범죄예방을 위한 범범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남계파출소는 관내 38개 마을별로 인적·물적취약요소를 파악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순찰목표를 설정하고 집중 순찰로 범죄예방 및 민생치안확립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 유해업소에서의 선도를 위한 캠페인과 함께 심야 유흥가 입대 및 혐급다액취급업소 금은방 주변 등을 자율방범대와 합동으로 순찰 실시 취약지역 보강에 집중하였다.

/순창=이양원 기자

## 남원농업대학 과정개설 의향조사

남원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17년 남원명품농업대학(농업인대학) 교과(작목)과정에 지역농업인의 의견과 실정을 반영하기 위해 의향조사를 실시한다.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오는 2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각 읍면 농민상담소 및 이백면 소재 농업기술센터에 비치된 의향조사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2017년 남원명품농업대학의 교과과정이 개설되며 추후 입학원서 제출자에 한해 전형을 거쳐 수강생을 선발하게 된다.

그동안 우리지역 영농현장에서 우리농업인이 요구하는 교과과정을 편성·운영해 합리적인 농장경영으로 농업경쟁력을 배양하고, 과학영농실천능력을 갖춘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을 목표로 7년여에 걸쳐 15개 품목 942명을 배출했으며, 올해는 4개 과정에 180명이 수강중이다.

교육은 3월~11월까지 과정 당 25회에 걸쳐 진행된다. 또한, 학습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단순 이론중심에서 탈피해 실기·실습교육, 선진지견학 등 다양하게 편성하여 자기 주도적이고 참여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졸업자에 한해 100시간의 교육이수 시간을 인정해주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 재경 신덕면 향우회 정기총회

제21차 재경 신덕면 향우회(회장 김오성) 정기총회가 흥촌포 입실군 향우회장을 비롯해 읍·면 향우회장, 사회단체장, 면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지난 12일 서울 동대문구 전농프라자에서 열린 정기총회는 감사보고, 감사대수여에 이어 노래자랑, 행운권 추첨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돼 회원들이 화합하는 장이었다.

특히 지역민 화합과 향우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김중수 군 신체장애인 협회회장이 감사패를 받았다.

김오성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바쁜 일정을 뒤로한 채 정기총회에 참석해준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다"며 "앞으로도 고향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남원경찰, 교통사고 예방 홍보

남원경찰서(서장 황종택) 대산파출소(소장 소재주)는 북남원C-남원 시내권 연결도로를 이용하는 인근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교통사고 예방 홍보를 집중적으로 펼치고 있다.

대산파출소는 금강마을 앞 교차로를 이용하는 인근 5개 마을 주민 대상으로 차량 및 보행자의 교차로 통행방법 등 교통사고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한편, 소재주 대산파출소장은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안전한 교통수단 이용과 현장 안전교육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 임실군민체육회관 안전점검 실시

임실군은 지역민 복지증진과 이용객 편의를 위해 군민체육회관 시설 개·보수 및 환경을 정비하고 소방, 건축,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해 주민 불편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군은 8,600만원을 투입, 기존 샤워장을 새롭게 정비하고 추가로 여자 샤워장을 설치해 편의성을 높였으며, 노후화된 변압기를 교체하고 있다.

또한 동절기를 맞아 체육관 중앙난방시설 전환과 지붕 유리를 실리콘으로 방수 처리하는 등 시설정비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외벽 및 유리벽, 사무실 내 청소를 실시하고 주변 조경수 정비작업 등의 환경정비를 비롯, 소방종합정밀검사와 건축물정밀안전점검 용역을 통해 안전한 시설을 유지 관리에 노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임실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에 따라 군민은 체육회관 모든 시설을 50%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며 "체육활동 및 휴식처 제공으로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